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부활주일]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64장** **다같이**

1.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2.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3.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4.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기 도 **가족 중****성경봉독** **요한복음 20:11-18** **인도자**

-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 13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
하더라
-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졌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
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
이라는 말이라)
-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

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설 교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 설교자의 대표기도 또는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 1)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와 개인이 회복하도록
- 2)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요한복음 20:11-18)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사흘이 되던 날 새벽에,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도굴되었다고 오해했다. 마리아는 놀란 가슴을 안고 달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 확인해보니 빈 세마포와 수건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지만, 시신은 없었다. 두 제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다시 마리아만 남아 울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도 울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통곡했으며, 장사를 지낼 때도 울었고, 이제 시체가 없어졌다고 다시 울고 있다. 하지만 이 눈물 때문에 천사를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게 되었다. ▶울고 있는 마리아 뒤로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15절).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애로운 음성으로 그녀를 부르셨다. “마리아야”(16절). 그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본다.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므로 부활은 마리아를 위한 사건이 된다. “마리아야” “랍오니.” 이 가장 짧은 대화에 가장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름을 부르기 전과 후는 얼마나 다른가!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증인이 되었다. 마리아는 사도적인 인물 아니 그 이상이다.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된 여인이지만, 그 후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이다. 우리는 이 여인의 열정, 헌신, 용기,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실한 증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도 부활 증인의 공식 명단을 제시한다(고전15장).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부활은 사람이 고안해 낸 생각이 아니다.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비로소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다.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의 정원 빈 무덤에 “이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예수님이 일어나신 무덤은 죽음, 절망, 슬픔, 고통, 질병의 자리를 말한다. 주님은 살아나셔서 희망, 기쁨, 생명, 영광의 자리로 옮기셨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기는 변화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다.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린다. ▶마리아는 평생시처럼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려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17절)고 하셨다. 압복 강의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듯 마리아는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려 했다. 마리아는 아마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듯하다. 새롭게 바뀐 영적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 사실 ‘붙드는 것’과 ‘만지는 것’은 다르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의 예수님이 아니다. 놀랍고 영화롭게 변화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셨지만, 지금부터는 그럴 수가 없다. 이제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이다. 부활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과거가 붙들지 않도록, 죄가 붙들지 않도록, 슬픔이 붙들지 않도록, 질병이 붙들지 않도록, 사망이 붙들지 않도록, 옛사람이 붙들지 않도록, 추억이 붙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오염이 붙들지 않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활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전진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성육신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신 것이지만,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를 붙들려고 하지 말고, 가서 제자들을 붙들라.” ▶교회의 시작은 부활이다. 십자가 죽음의 메시지를 복음으로 만드는 것은 부활이다. 부활은 패배에서 나오는 승리, 약함에서 나오는 강함, 죽음에서 나오는 생명, 버림에서 나오는 구원을 보여 주는 궁극적인 이야기이다.